내 육신은 '배' 참마음은 '선장'
선장에 다 맡기면 항해 순탄

▲스님: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찰나의 생각으로써 한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고두고, 마음먹고 온 게 아니라 한 찰나에 한 자리를 한 겁니다. 법회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라고 한 것은 서로 토론을 함으로써 크고 작은 것이 드러나는 이치로써 여러분 모두 밝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깐 오늘도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한 찰나에 한 자리 들어

▲질문자1: 그러지 않아도 스님의 법문이나 스님의 모습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은 이렇게 가까이서 뵙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강릉지원에 나간 것은 한 4~5개월밖에 안됩니다. 그 동안에 스님의 법문, 정말 참 잠잘 때 빼 놓고는 들었지만 그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항상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듣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 하면은 배가 강을 건너는데 그것을 비유한다면 주인공은 즉 배의 선장이고, 이 육신은 그 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의문난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나라고 하는 이 거짓 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참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는 거기에 하나의 손님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선장의 그림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돼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스님: 여러분의 몸이 공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도 빠질 것이 없고 들여놓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유를 해서 따진다면 방편으로써 선장으로 진짜 마음, 진정한 마음을 선장으로 하고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 내 육신 즉 이 모습은 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만 그 배에서 움죽거리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바람이 치고 뇌성벽력을 치는데도 그냥 잠자코 타고 건너갈까요? 건너오기도 하고.

▲질문자1: 오직 그 선장만을 믿고서 간다면 거기에는 딴 하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스님: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자기 불성이라는 그 생명력을, 즉 말하자면 선장이라고 비유한다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비가 안 올 것이고 또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바람이 안 불 것이고, 선장은 선장대로 그대로 중생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선장하고 배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어떠한 사이가 돼서 그렇게 조금도 해로움이 없이 오고 가게 됩니까?

▲질문자1: 스님 말씀대로 공체이고 공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의문이, 여기에서는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그것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그러면 제가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에 걸어서 들어오셨죠?

▲질문자1: 예.

▲스님: 걸어서 들어오셨는데 그 발자취는 가져 오셨습니까?

▲질문자1: 흔적이 없습니다.

▲스님: 네. 그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은 세세생생에 어떠한 걸로도 쓸 수 있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지만은 진짜 마음은 내가 씀씀이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쓰는 그 마음이 진짜 공법입니다.

▲질문자1: 스님,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참 너무나 감명깊이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스님께서 고행을 하실 때 그 어딜 가다가 진흙바닥에 앉으셔서 뭔가 깨달으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 하면은 그 진흙발을 걸어가다 보니까 한발은 크고 한발은 조그맣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 조그만 한 쪽 발은 지금 모습의 자기이고 큰 발은 아까 선장이라고 그랬던 그 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자1: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꿈을 꾼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동자를 업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동자가 누구냐고 묻길래 그 어린 동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라면 똑같지 왜 그렇게 크고 작으냐고 하길래 그랬습니다. 하나는 어린애고 하나는 어른이니까 크고 작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발까지 마저 어른발로 따라 가야만이 공부를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 말을 했습니다.

▲질문자1: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계라고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자기를 말하고 물질계라고 한다면 보이는 자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자2: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는 처음 왔습니다. 간염 때문에 간이 안 좋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간경화로 인하여 안 좋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세상이 그냥 道인 공부

제가 어릴 적에 묘사를 지내러 가면 거기 윗대 조상님께서 그 묘터가 좋다 하여 바로 절 앞에서 스님을 묶어 놓고 그 묘를 썼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로 인해 그러는지 윗대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면 정신이상으로 고생들을 하는데 제가 보는 바로는, 이 공부를 하고 부터 자꾸 봐 집니다. 그렇게 증조부 내외분께서 또 그런 일이 생겨서 멸이를 하였습니다. 멸이하고 부터도 계속 정신이 좀 이상이 생긴 집안이라고, 말이가 제일 많이 그랬습니다. 선친께서도 들에서 일하시다가 74세에 전기감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그런지 저도 몸이 개운치가 않아 몸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또 간이 안 좋고, 그런가 하면 또 딴 게 오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회에 올라오기 몇 일 전입니다.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소가 소죽을 먹는데 소 마굿간에 너무 거름이 차여서 빗장을 열라고, 소가 밖에서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래 "소야 너는 왜 그렇게 우노?" 그러니까 "나는 전생에 스님한테 큰 죄를 지어서 소가 됐느니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는 다음 생에 나와 같이 태어나 성불하자." 하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깼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법회에 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조금씩 쥐가 났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세 번이나, 저를 정신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회에 가려고 하니까 조상님들께서도 자꾸 간절히 그렇게 하시는구나 싶어서 스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는 못해 드리겠고, 간단히 말해서 3대 조상 위로는 산을 상당히, 누구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성을 믿었단 얘깁니다. 자성을 믿고 오던 중, 모두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마는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생각이 잘못된 거지 잘못일을 저질러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만큼 아무리 여러 분이 계셔도 모두 다 한 분입니다. 한 분. 따지고 본다면, 그런데 그것을 둘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럿으로 봤기 때문에 잘못이 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길이 잘못 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길을 잘못 들었다 하는 것은 댁에서라도 공식으로서 잘 갈 수 있다. 공심으로서 잘 갈 수 있다. 우리 몸이 하나면 공체다. 공체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가 닥치면은 생각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나쁜 거 좋은 거를 모두 구별할 줄 알고 잘 알 수 있으니까 그저 너무 지나치게 나쁘지 않게 하신다면 되구요.

이 부처님 법에는, 부처님의 법이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들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써 항상 관하실 때 둘이 아니니까 조상도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체로 생각하십시오. 주인공이라면은 사람이자 공입니다. 공했습니다. 전부. 공했으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없는 가운데에 이것은 둘이 아닌 까닭에 이건 여러분이 다리 아플 일도 없고 또 팔 아플 일도 없고, 간이 아플 일도 없고 발이 아플 일도 없는데 이것을 조상 따로 자식 따로, 둘째 조상 따로 셋째 조상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치니깐 따로따로 치는 데로 거푸거푸 잠재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모두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두 한 도량에 한 주인공에다가 일임하시고 관하신다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구요.

그러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고 자기가 자기 다리 아프게 할 일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프게 할 일 없는 까닭에 아픈 것은 스스로서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냥 옷을 벗고 그냥 가시는 거죠. 다시금 옷을 입으려구요. 또 옷을 입으려고 하면 입는 거고 옷이 무슨 필요 있느냐, 움죽거리는 게 싫다 한다면 그냥 보이지 않게 가고 옴이 없이 움죽거리시고 그냥 우리들처럼 생짜로 먹고 지내는 그런 움죽거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여러분이 이 마음의 공부를, 편안한 마음의 공부를, 이 세상이 그냥 도라고 하는 이 공부를 잘 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니깐 어려운 거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두 집착을 하고 살아오던 그 버릇이 착이 남아서 그 착을 가지고 쓰니까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깐 삼대 위로도 그런 마음 공부를 하셨다가 잘못했으니까 댁에서 그걸 받아서 잘 하십시오.

▲질문자2: 네.

▲스님: 오늘서부터는 다리 하나 찌끗하지 않게 해 보세요.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내가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린 거, 그것이 정말이지 익어서 진짜 소화가 잘 되게 모두 잡수셨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되든 안되든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돌 알갱이가 채여서 굴러가는데 굴러가다가 왜 굴러가나 봐야 하고, 왜 굴러가다 섰는가 하는 것도 봐야 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돌이 가고 안가고 상관없이 우리가 가고 오고 한 찰나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량이 생깁니다. 지금 이런 시대도 말입니다. 이런 시대도 모두 벌거벗고 껑충껑충 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겁이 안 나고 좋은 것입니다, 이 공부가. 오다가다가도 님을 건질 수 있고 말없이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건 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너를 건져주니까 좀 고맙다고 해라 이러지도 않구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이 합이 없이 한단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사는 도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을 24시간 한다 하면서도 이 모습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영원한 게 아니지마는 그 마음 씀씀이의 큰 것은 영원히 세세생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르시라 이겁니다. 마음을 기르셔야 마음 한 생각에 천리를 가고 한 생각에 만리를 가고 한 생각에 만 부처님들을 다 친견할 수 있고, 어진 사람은 어진 사람대로 구원할 수 있고 또 나쁜 사람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한 순간에 그 공식에 들어가면은 좋아지고, 그러니깐 이건 불가 부득이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건 결국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진화돼서 화했지마는 진짜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 이것은 먹고살기 때문에 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먹고살기 때문에, 이 먹고사는 걸로 인해서 싸우고 뺏고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 뺏어서 먹지 않고 죽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됩니다. 왜?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이 세상에 나서 몇 알갱이나 살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모습은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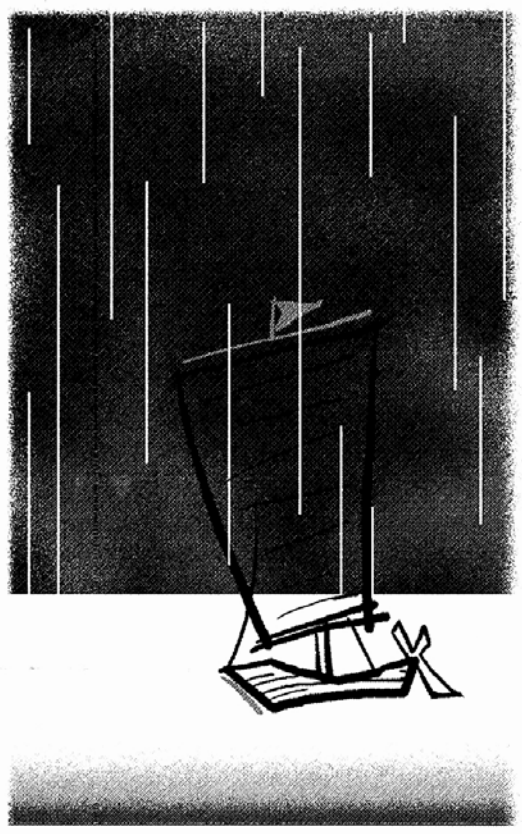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현재 모습 작은 발, 불성은 큰 발 두 발 같아질 때까지 공부하세요"

모든 것이 空해 너도 나도 없고 둘 아닌 까닭에 아플 일도 없어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